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2	제 [] 선택
----	------	---	----------

윤리와 사상

1.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와의 가상 인터뷰이다. 이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통의 극복을 위해 신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 ② 차별 의식을 버리고 자연의 도에 따라 살아야 한다.
- ③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도덕규범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 ④ 인위적인 문명 발달을 위해 학문 탐구에 매진해야 한다.
- ⑤ 자연을 지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우주의 본성은 질서 정연한 세계를 창조하고자 한다.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필연적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이성적 현상이다. 이를 기억하면 여러 상황에 처했을 때, 보다 침착하게 대처하여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을: 우리가 “쾌락이 목적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쾌락은 우리를 잘 모르는 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 ① 갑: 정념에 동요되지 않는 정신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운명에 순응하여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해야 한다.
- ③ 을: 참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공적인 삶을 피해야 한다.
- ④ 을: 쾌락은 선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 ⑤ 갑, 을: 헛된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는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한다.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본성[性]이 본래의 꾸밈이 없는 바탕을 뜻한다면, 인위[偽]는 형식과 도리[文理]가 융성한 것이다. 본성이 없으면 인위를 가할 데가 없고, 인위를 가하지 않으면 본성은 저절로 아름다워질 수 없다. 인간이 본성을 따르면 반드시 쟁탈하는 데로 나아간다. 인간의 선함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 ①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 선한 본성을 실현해야 한다.
- ② 하늘이 부여한 사단(四端)을 확충하며 살아가야 한다.
- ③ 성인에 의해 제정된 예(禮)를 통해 본성을 교화시켜야 한다.
- ④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므로 오직 상과 벌로써 통치해야 한다.
- ⑤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하다는 것의 척도이고, 그러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의 척도이다.
 을: 우리들 중 누구도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한다. 반면 나는 실제로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 작은 차이로 인해 내가 더 지혜롭다.

- ① 갑은 모든 가치 판단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라고 본다.
- ② 갑은 이성을 바탕으로 보편적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선을 알면서도 고의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 ④ 을은 지혜 없이도 덕을 지닐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철학적 탐구의 대상을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라고 본다.

5.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게
 그대는 증생이 있다고 말하지만, 증생이란 다만 허망한 요소들의 집합일 뿐 증생이라는 것은 거기에 없다네. 마치 여러 재목(材木)을 한데 모아 세상에서 수레라 일컫는 것처럼, 인연(因緣)에 따라 모인 것을 임시로 증생이라 부른다네. ... (중략) ... 모든 욕망과 괴로움을 버려서 깨달게 되면 모든 번뇌가 사라져 편안히 살 수 있다네.

- ① 바른 수행을 바탕으로 열반(涅槃)에 도달해야 한다.
- ② 모든 사물이 무상(無常)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 ③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삼독(三毒)을 제거해야 한다.
- ④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 자비(慈悲)를 베풀어야 한다.
- ⑤ 쾌락과 고행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를 실천해야 한다.

6.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영혼 전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을 따르고 반목을 하지 않는다면, 영혼의 각 부분이 다른 모든 면에서도 자신의 일들을 할 수 있으며 올바를 수 있다.
○ '선(善)의 이데아'를 본 자들은 그것을 본으로 삼고서 저마다 여생 동안 번갈아 가면서 나라와 개인들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도록 해야만 한다.

- ① 생산자는 통치자와 달리 지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은 욕구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
- ③ 도덕적 진리의 참된 근원을 현실 세계에서 찾아야 한다.
- ④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번갈아 가며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 ⑤ 영혼의 세 부분이 제 역할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총체적으로 말하면 진(眞)과 속(俗)이 둘이 아니므로 하나를 고수하지 않는다. 둘이 아니므로 말미암아 곧 일심(一心)이고, 하나를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체(體)를 들어 보면 둘이 된다. 이와 같은 것을 일심이문(一心二門)이라고 한다.
을: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두 문은 성인(聖人)들이 밟아 온 길이다. 과거의 성인들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 나갔고, 그 닦음에 의해 증득(證得)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깨달음에 의지해 차츰 익혀야 나타나는 것이다.

<보 기>
ㄱ. 갑은 무명(無明)에 도달하기 위해 일심의 회복을 강조한다.
ㄴ. 을은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는 수행을 중시한다.
ㄷ. 갑, 을은 대립하는 불교 종파 간의 조화와 화합을 추구한다.
ㄹ. 갑, 을은 누구나 돈오하면 단박에 습기(習氣)가 사라진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무력을 사용하면서 인(仁)을 실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은 패자(覇者)인데, 패자에게는 반드시 큰 나라가 있어야 한다. 덕으로써 인을 실행하는 자는 왕자(王者)인데, 왕자는 큰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력으로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다만 자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일 뿐이다. 덕으로 사람을 복종하게 한다면 기뻐하며 진정으로 복종할 것이다.

- ① 통치자는 인의(仁義)에 기반을 둔 왕도 정치를 해야 한다.
- ② 통치자는 백성들의 도덕적 교화보다 부국강병에 힘써야 한다.
- ③ 군자는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양에 정진해야 한다.
- ④ 군주(君主)는 나라의 근본이므로 절대로 교체되지 않아야 한다.
- ⑤ 대장부가 되기 위해 의로움을 버리고 이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9. 다음을 주장한 중국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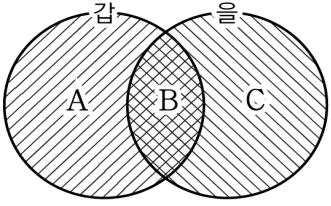
무릇 사물의 이치[物理]는 내 마음 밖에 있지 않다. 내 마음 밖에서 사물의 이치를 구하면 사물의 이치는 없다. 이치가 어찌 내 마음 밖에 있겠는가? 무릇 마음 밖에서 이치를 구하기 때문에 어두워 이르지 못하는 곳이 있게 되는 것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도덕적 삶을 위해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	✓	✓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제거해야 한다.	✓			✓	✓
엄숙한 태도로 사물에 내재된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		✓		✓	
먼저 만물의 이치를 탐구한 이후에 도덕적 실천을 해야 한다.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0. (가)의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공리의 원리란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성에 따라서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뜻한다. 모든 쾌락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의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을: 공리의 원리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쾌락에 비해 더 가치 있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있다. 다른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에만 의존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 기>
ㄱ. A: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고 오직 양적 차이만 있다.
ㄴ. B: 이해 당사자들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온 행위는 선하다.
ㄷ. B: 모든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한다.
ㄹ. C: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 판단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가)의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조건부 의무는 다른 조건부 의무와 같등하지 않을 때는 실제적 의무가 되지만, 다른 조건부 의무와 같등할 때는 더 우선적인 다른 의무에 의해 무시될 수 있다.
 을: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이다. 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코 존경심을 가질 수는 없다.

(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

<보 기>

ㄱ. A: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인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ㄴ. B: 도덕적 의무라도 직관적 판단에 의해 유보될 수 있는가?
 ㄷ. C: 아무런 제한 없이도 선택한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인가?
 ㄹ. C: 동정심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도덕적인 가치가 없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ㄴ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절제란 자신을 완전히 신에게 바치는 사랑이고, 용기란 신 그 자체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랑이며, 정의란 신에게만 헌신하는 사랑이요, 지혜란 신을 지향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랑이다.
 을: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 즉 생명 보존의 성향, 종족 보존의 성향, 신을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성향에 의해 구체화된다.

- ① 갑: 신의 도움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 ② 갑: 선뿐만 아니라 악도 전지전능한 신이 창조한 것이다.
- ③ 을: 인간은 이성을 활용해 영원법을 완전하게 알 수 있다.
- ④ 을: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 ⑤ 갑, 을: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 현세에서 이루어진다.

13.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칠정(七情)뿐만 아니라 사단(四端) 또한 ‘기(氣)가 발(發)하여 이(理)가 탄 것’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기가 발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그것을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그것을 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사단은 칠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사단과 칠정이 발하는 연원이 다름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칠정은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이와 기는 사물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이는 운동성이 없으므로 발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1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신 이외에는 그 자체 안에 있으며 그 자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양태는 실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파악될 수도 없다.
 ○ 우리는 우리 존재의 보존에 도움이 되거나 해가 되는 것을, 즉 우리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선 또는 악이라 부른다.

- ① 신은 만물이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하는 내재적인 원인인가?
- ② 무한한 존재인 신 이외에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는가?
- ③ 자연 안의 모든 일은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따라 생겨나는가?
- ④ 사물의 궁극적 원인과 질서를 인식할 때 참된 행복이 가능한가?
- ⑤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의지를 발휘해야 하는가?

15.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난세(亂世)를 구하는 길은 이단(異端)을 배척[斥]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단을 배척하는 길은 정학(正學)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정학을 밝히는 일은 한마음으로 천리(天理)와 인욕을 구별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을: 반상(班常)의 구별은 사람이 정한 바요, 도(道)의 임무는 한울님이 시키신 바니, 사람이 한울님께서 정하신 임무를 철회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 우리의 도 안에서는 일체 반상의 구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

- ① 갑은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기존의 차별적인 신분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현세에서 지상 낙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서양의 종교와 학문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유교적 가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16.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인연(因緣)으로 생겨난 것, 우리들은 그것을 공성(空性)이라고 부른다. 그 공성은 거짓 이름[假名]이며, 그 공성이야말로 중도(中道)의 의미이다.
 (나) 분별하는 것과 분별되는 것은 모두 식(識)이 변화[轉變]하는 작용에 의한 것이므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체가 오직[唯] 식(識)일 뿐이다.

— <보 기> —
 ㄱ. (가)는 윤회를 지속하는 것을 수행의 목표로 본다.
 ㄴ. (나)는 마음의 작용이 모든 현상을 만들어 낸다고 본다.
 ㄷ. (가), (나)는 인연으로 생겨난 사물은 공(空)하다고 본다.
 ㄹ. (가), (나)는 자연의 모든 존재를 고정불변의 실체로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적인 덕이고, 다른 하나는 품성적인 덕이다. 지적인 덕은 이성과 관련되므로 그러한 덕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 속하고, 그 부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품성적인 덕은 비이성적이지만, 본성상 이성을 가진 부분을 따를 수 있는 부분에 속한다.

- ① 지적인 덕이 없어도 중용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② 품성적인 덕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③ 도덕적 삶이 있어도 의지가 나약하면 악을 행할 수 있다.
 ④ 도둑질과 같은 악한 행위일지라도 반드시 중용이 존재한다.
 ⑤ 용기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하는 품성이다.

18.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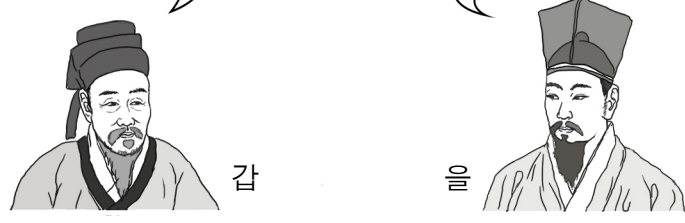
인상들을 구별함으로써 우리는 도덕적 선악을 알게 되는데, 인상들을 구별하는 것은 특정한 고통과 쾌락일 뿐이다. 따라서 도덕적 구별에 대한 탐구는 우리가 어떤 성격을 보고 만족이나 거북함을 느끼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진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 <보 기> —
 ㄱ. 이성만으로는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없다.
 ㄴ. 행위에 대한 선악의 구분은 이성이 아닌 감정에 근거한다.
 ㄷ.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ㄹ. 도덕적 감정은 사회적 유용성과 무관한 쾌락과 고통의 감정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9. 그림은 중국 사상가 갑, 한국 사상가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仁)이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으로, 사람은 그것을 얻어서 마음으로 삼습니다. 인은 인간 본연의 성(性)이며, 하늘의 이치[理]입니다.
 인이란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은 본래 마음에 내재한 덕(德)이 아니라 실천[行事]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 ① 갑은 본연지성을 기질지성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② 갑은 인이 윤리적 실천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③ 을은 타고난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을 함양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嗜好]을 인간의 본성[性]으로 본다.
 ⑤ 갑, 을은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도덕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본다.

20.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이름이 바르지[正名] 않으면 말이 사리에 맞지 않고, 말이 사리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이 일어나지 못하고, 예악이 일어나지 못하면 형벌이 적절하지 못하고, 형벌이 적절하지 못하면 백성은 살아갈 방도가 없다.
 을: 천하에 금기하는 것이 많으면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이로운 기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혼란해지고, 사람에게 재주와 기교가 많을수록 기이한 물건이 더욱 많이 생겨나며, 법령이 많아질수록 도적이 더욱 많아진다.

— <보 기> —
 ㄱ. 갑은 각자가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무위의 통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갑과 달리 도덕보다 엄한 형벌로 통치해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인의(仁義)가 실현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